

포스트휴먼 시대에 휴머니즘의 해체와 재발견

김광연 (송실대학교, 연구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코페르니쿠스적 전회(1): 자연에서 인간으로

1. 고대 그리스의 목적론과 자연 이해
2. 기술에 따른 자연의 재해석과 인간중심주의

III. 코페르니쿠스적 전회(2): 인간에서 기계로

1. 기계중심사회와 포스트휴머니즘
2. 기계의 인간화 사회와 휴머니즘의 해체

IV. 휴머니즘으로의 귀환: '자연적 존재'와 유한성을 지닌 인간

1. 자연적 존재와 '유한성'으로서의 휴머니즘과 가치
2. '신의 선물'로서의 타고난 재능과 '함께함'으로서의 휴머니즘적 가치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8.05>

• ABSTRACT •

Deconstruction and Rediscovery of Humanism in the Posthuman Age

Kim, Gwang-yeon (Research Faculty, Soongsil University)

The teleology of nature that appeared in ancient Greece was newly re-interpreted with the development of human reason and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in the modern age. The perception that nature no longer exists for humans rather than a being with its own nature has become prevalent. However, while re-examining these values of nature, humanity faces another crisis. With the arriva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osition of humans gradually declined and began to change to a 'machine-centered society.' Now, humankind faces with a situation where machines would be given a central role in future society.

In this regard, this thesis looks into the machine-centered society secretly found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difference between nature-centered and human-centered. It contemplates the value of nature and humanity lost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to nature, human and machine society, and expresses our regret that we can no longer dream of nature-centered values. Lastly, this study sheds a new light on the values of humanism that will disappear with the advent of a machine-oriented socie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value of humanism as natural existence and 'finitude' and the value of humanism as an innate talent and 'togetherness.'

Key words: Naturalism, Anthropocentrism, Deconstruction, A Natural Being, Humanism, Posthumanism

I. 들어가는 말

자연의 본질적 가치가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강조되면서 자연은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이 인간을 위한 도구적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자연의 가치에 대한 회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시기와 맞물려 인류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다.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인공지능(AI)과 사이보그 등 ‘기계중심사회’로의 전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늘날의 세계관은 자연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기계중심사회로 이행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자연, 인간, 기계 중심적 사회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와 그것들의 윤리적 함의들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이 글은 과학기술의 거듭난 발전으로 생겨난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적 태도에 대한 염려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중심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중심 세계관으로의 복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동시에 기계중심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인간미 상실, 인간(몸)의 기능적 해석, 자연적 존재 또는 자연 발생학적 존재로서의 몸의 가치의 상실 등의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인간중심주의와 기계중심주의 사회가 공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계중심사회가 자리 잡게 되면, “차라리 자연중심까지는 못가도 인간중심적 가치로의 회귀라도 원하는 사회”가 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글은 현시대에 등장하는 AI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의 훼손으로 인한 인간학적 제고의 목적을 두고 휴머니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글은 인간중심주의가 가진 부정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휴머니즘으로의 회귀의 불가피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자연중심과 인간중심 차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청

객으로 찾아 온 기계중심사회까지 고민한다. 이 글은 초반에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살피고, 후반에는 기계중심사회에서 그나마 인간중심주의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안타까움과 기대감을 요청한다. 자연중심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중심사회가 자리 잡게 되면 오히려 인간중심사회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 글은 자연중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간중심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인간미와 휴머니즘의 가치에 대해 살피고, 기계중심사회가 오면, 더 이상 자연중심의 가치관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미래의 안타까움까지 드러내고 있다.

II. 코페르니쿠스적 전회¹⁾(1): 자연에서 인간으로

1. 고대 그리스의 목적론과 자연 이해

소크라테스 이전, 고대 초기 철학자들에게서 자연 현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양상들은 자연 세계의 심층 깊은 이해와 연결되며, 그러한 현상들에 관한 궁극적 이유에 관해 알기란 매우 어려웠다.²⁾ 당시 이들은 자연에 대한 탐구를 깊이 연구했기에, 자연철학자들이라고도 불리었다. 그들은 모든 실체의 출발을 자연의 일부인 물, 공기, 불, 흙 등의 요소를 제시하면

1) 코페르니쿠스(N.Copernicus)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에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자전과 동시에 공전하고 있다는 학설을 주장했다. 그로 인해 고대와 중세의 과학적 접근 방법인 목적론적 방법과 달리 관찰과 입증을 통한 귀납적 방법의 등장으로 이후 세계관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Samuel Enoch Stumpf & James Fieser, *Socrates to Sartre and Beyond: A History of Philosophy*, New York: McGrawHill Press, 2002, 205-206.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란, 패러다임처럼 급격한 세계관의 변화를 일컫는다. 자연, 인간, 기계 중심의 세계관의 변화와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변동과 염려 등을 염두에 두고, 글쓴이는 이 글에서 세 가지 유형의 변화들을 담아 제목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표현했다.

2) Brooke Noel Moore & Kenneth Bruder, *Philosophy: The Power of Ideas*, London: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3, 26-27.

서 자연의 원리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다. 자연에 대한 관심은 자연 철학자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주된 관심 주제로 옮겨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Teleology)은 자연 세계관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도 적용되었다. 인간 대다수의 행위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고, 목표 지향적 가치관이 제기되었다.³⁾ 그는 모든 사물은 목적을 가진 운동을 한다고 말한다. 그는 운동원인이 운동 주체가 아닌 외부에 의해 생겨나는 것을 외재적 목적론이라 부르고, 자연과 같이 운동의 원인이 자연 안에(스스로) 존재하고 있기에 이를 '내재적 목적론'이라고 했다.⁴⁾

자연은 자신만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목적은 합목적성으로 불린다. 이는 목적을 위해 개체(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목적으로서 전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은 거대한 목적을 위해 그것을 이루고자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개체의 조화를 이루며 활동한다. 자연은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고 그 목적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자연이 가진 내재적 목적론은 인간의 삶과 연결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은 다름 아닌 대지(大地)에 축축한 물을 충족시켜주는 목적과 연결되었다. 그러한 현상 하나 하나는 생명체를 살리는 나뭇의 목적을 가진다. 나무는 물이 있어야만 성장하고 물고기들이 웅덩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했다. 자연 스스로가 웅덩이에 물을 채워주었다. 이처럼 자연은 거대한 생명의 순환을 유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 이전 자연은 어떠한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의 초인간적인 영역을 이해할

3) R. L. Arrington, *Western Ethics*,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1998, 64.

4) 유원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관이 지닌 의미와 한계", 『대동철학』 제71집 (2015), 34-35.

수 없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연은 인간 이성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서서히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2. 기술에 따른 자연의 재해석과 인간중심주의

고대 시대에 등장한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과 달리, 근대에 접어들면서 인간 이성의 발달과 과학 시대의 진입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구적 해석에 따라 자연을 기능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근대에 들어서자, 기술발달에 따른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선 자연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간주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kopernikanische Wendung)가 일어났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란 대상을 인식하여 진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 기준을 대상 중심에서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중심으로 사고 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⁵⁾ 근대 이전, 인간은 거대한 자연의 합목적성과 질서 안에서 수동적 자세를 지녔다. 인간은 자연이라는 초월적 힘을 가진 대상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자연을 어떻게 이해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자연을 하나의 가치나 기능으로 해석하는 주체가 되고, 자연은 인간에 의해 평가받는 대상이 되면서 인간중심적으로 자연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자연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자연중심주의에서 인간중심주의로의 이행 속도를 부추겼다. 자연에

5) 박종식,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와 이성의 이질성 문제”, 『대동철학』 18집(2002), 6-7.

대한 인간중심주의는 자연보다 인간의 기술을 더욱 우월하게 보는 입장이다. 자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간중심주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먼저 인간중심주의 가치는 자연을 기능화 내지는 도구화로 간주한다. 자연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기능으로 대체되었다. 인간은 자연의 여러 현상들을 단순히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부를 따지며 기능적으로 축소시키고,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대상에 대해 그것이 가진 내재적 가치와 본질을 지켜 나가기보다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⁶⁾

다음으로 인간중심주의 가치관은 자연의 ‘본래적인 것’들에 대한 변형과 조작 그리고 ‘길들이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버마스(J. Habermas)는 ‘길들이기’ 방식에 관해, 그동안 인류는 자연과 수많은 생명을 대할 때, 가축의 ‘길들이기’ 방식으로 자연을 친구삼아 그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을 넘어 조작과 변형의 길들이기 다시 말해 기술적 간섭의 영역으로 자연을 끌어들인다고 했다.⁷⁾ 오늘날 인간중심주의 가치관들은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을 가진다.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적인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일삼는다. 인간은 GMO 식물 개량 등 자연적인 것들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GMO 식품과 같은 유전자 조작 기술은 인간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자연의 생명을 함부로 재창조하는 대표적인 조작의 사례이다.

끝으로 자연을 인간의 귀속물로 인정하려는 종족주의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비롯된다. 종족주의는 피터 싱어(P. Singer)가 언급했다. 그것은 인간이 다른 종보다 우위에 있어서 인간이 다른 종을 차별하고 심지어 착취하

6) 박찬국, “목적론적 자연관에 대한 재검토”, 『시대와철학』 Vol.15(2004), 137.

7) J.Habermas, *Die Zukunft der menschlichen Natur*, 장은주 역, 『인간이란 자연의 미래』, (서울: 나남출판사, 2008), 41.

는 것이다.⁸⁾ 인류는 자연의 거대한 가치를 인간의 이익과 가치관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자연중심의 가치관은 인간중심주의의 기획으로 대체되면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중심에서 비롯된 종족주의는 자연 곧 인간을 제외한 자연 생명체를 수단으로 보고, 그들 존재에 대해 인간의 기획에 따른 차별과 종의 계급화를 만들면서 또 다른 종의 차별을 가져오고 있다.

현재 인류는 자연 중심적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자연보호와 환경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정작 사회는 자연과 인간중심주의 사이에서의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사회로의 변화에 분주해 있다. 바로 포스트휴먼 사회로의 이행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류의 삶의 양태는 기계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일상 거의 대부분을 기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인간중심의 가치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간중심주의가 아닌 기계중심사회로의 이행은 더 이상 미래의 일들이 아니다.

III. 코페르니쿠스적 전회(2): 인간중심에서 기계중심으로

1. 기계중심사회와 포스트휴머니즘

현대 사회는 자연과 인간 사회를 넘어 기계사회라는 또 다른 화두를 경험하고 있다. 앞서 이 글은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살펴보았지만, 미래에는 기계중심사회가 오게 되면 오히려 인간중심의 가치관을 되레 요청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III장에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나타난 인간중심주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간미에 대한 상

8) P. Singer, *Rethinking Life and Death*. (New York: Martins's Griffin Press. 1994), 173.

실을 염려해야 하고, 안타깝지만 인간중심주의라도 소중히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본다.

닉 보스트롬(N. Bostrom)에 의하면, 트랜스 휴머니즘(Transhumanism)은 인간의 지적이고 육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함께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인간의 여러 조건들을 개선하는 사회적 변화를 의미한다.⁹⁾ 트랜스(Trans)는 변화, 전환을 나타내는데, 이는 기존의 인간중심적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사회로의 이행을 말한다. 트랜스 휴먼의 특징은 기존 인간의 실존에서 살아왔던 삶의 양태를 초월하는 또 다른 인간 삶의 양태를 향해 가는 과도기 시대이다. 트랜스휴머니즘 이후에 등장하게 될 포스트휴머니즘 시대는 기존의 인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로서의 휴먼을 더욱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시기를 말한다. 포스트휴먼의 대표적인 문화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이다. 이 기술은 맞춤형이나 휴머노이드 등의 더 영리하고 더 강한 인간의 탄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¹⁰⁾

루퍼트 샌더스 감독의 공각기동대 영화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를 주제를 다룬다. 공각기동대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주인공 스칼렛 요한슨(메이저)은 사이보그로 등장하는데, 신체 대부분이 인공신체를 하고 있다. 그녀의 몸은 완전한 인공(기계)이지만 뇌는 인간의 생각을 가진 로봇, 휴머노이드이다. 영화는 인간의 정신(형상)과 인공기술(질료) 사이에서 경계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다룬다. 영화에서 보듯, 인간의 몸은 인공기술과 기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업로드 된 두뇌의 기억은 과거 자신의 인간적 삶

9)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서울: 도서출판 아카넷, 2016), 30-31.

10) 신상규,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호모사피엔스의 미래』(서울: 도서출판 아카넷, 2017), 65-66.

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서 공각기동대에서는 본성적 측면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영화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공각기동대에서는 어떤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가치 즉 형이상학적 가치로서의 형상은 뒤쳐지고, 오히려 기능을 중요시하거나 그 기능의 역할을 하는 질료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영화 공각기동대는 질료가 아닌 형상은 그 질료가 의미를 가지게끔 해 주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던지고 있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접어들면, 사회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의 상실'이라는 변화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포스트휴먼을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성의 상실로 인한 사회 및 문화적 변화 그리고 [기계-인간의 경계선 상실]이 평범해진 사회에서 휴머니즘의 재발견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술은 인간 신체의 향상이다. 과학기술의 개입으로 인간의 신체에 장애를 제거하고, 질병을 치료하여 생명연장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류는 본성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¹¹⁾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류는 인간의 장기나 신체의 일부를 기계로 대체하여 수명을 연장하거나 기계장치를 사람의 몸 일부에 장착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기술의 등장으로 휴머니즘 이후의 삶은 인간 행동과 능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인간의 신체 기능과 인지 능력은 향상될 것이고, 인간에게 기술적 개입은 상상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¹²⁾ 앞으로 인류의 기술은 프로스테시스(prosthesis) 즉 '제2의 신체'라고 불리는 신체 일부 장기나 기능을 기계로 대체하여 인공적 장치를 만들어서 생명연장과 인간-기계의 확장된 뉴휴먼(new human)을 만들어낼 것이다.¹³⁾

무엇보다 기술중심사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11) 위의 책, 65-66.

12)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32-33.

13)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서울: 아카넷, 2017), 66-67.

드의 등장이다. 휴머노이드(humanoid)는 ‘인간(human)’과 ‘~와 비슷한(oid)’의 합성어로 ‘인간과 비슷한’이란 뜻을 지닌 로봇을 말한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외적 형태와 흡사하고, 인간의 행동까지 모방 가능한 로봇을 말한다.¹⁴⁾ 현재 이 로봇은 특별한 장비 없이 우주와 해저터널을 탐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노약자를 돌보고 자폐아를 치료하는 등 인간의 고유의 활동 영역에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흡사하게 감정 표현을 다룰 수 있어서 심리 치유에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감정과 정서적 표현 능력의 교감가능성을 보여준다.¹⁵⁾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sophia)¹⁶⁾는 인간의 여러 기능적 요소를 결합한 모델로 만들어졌다. 소피아는 인간과 유사한 반응을 학습하여 그 자극에 대해 인간처럼 대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피아는 이미 학습된 감정을 드러낸다. 지금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인간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다.¹⁷⁾ 하지만 먼(또는 가까운) 미래에 기술이 발달되면, 언젠가 <공각기동대>에 나온 등장인물처럼 더욱 확장된 지능과 두뇌를 가진 사이보그들이 나타나 인간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감정을 느끼는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기계중심사회, 포스트휴먼 시대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염려되는 것은 ‘기계의 인간화’이다. 기계의 인간화는 인간이 기계와 공존하는

14) 김관수·안춘기, “휴머노이드”, 『전기의 세계』 67권 2호(2018), 10-11.

15) 김태양, “휴머노이드의 미래: 로봇과 인류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 『Future Horizon』 34권(2017), 1-2.

16) 소피아 로봇은 지난 2018년 한국에 방문했다. 소피아는 화제 현장에 노인과 아이가 있다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지 질문을 듣고,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좋은지에 대한 질문과 같은 것이라며 아직은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준은 아니라고 스스로 평가했다(서울경제, 2018).

17) 김도식,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와 함께하는 시대”, 『철학과현실』 116호(2018), 141-142.

삶과는 다른 기계가 ‘인간처럼’ 되어 가는 존재를 말한다. 이 기술은 연구자들에 의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기존 기술과는 다른 수준 높은 기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 다시 말해 움직이고 소유하는 사물에게 어찌면 높은 윤리적 판단과 삶의 존재에 대한 권리까지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¹⁸⁾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서 이제 ‘기계의 인간화’ 시대는 인간에게만 요구되었던 사회적 주체로서의 참여와 존엄한 권리까지 그들에게 내어 줄 세상을 불러들이고 있다.

2. ‘기계의 인간화’ 사회와 휴머니즘의 해체

앞서 이 글은 자연중심에서 인간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이동 그리고 인간중심에서 다시 기계중심의 세계관으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계중심의 세계관은 기존 자연을 밀어낸 인간 중심성까지 뒷전으로 두게 했다. 자연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인간이 서서 자연을 지배하고 조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기계가 인간 사회의 중심에 서서 인간의 삶과 그 삶과 연결된 다양한 양태들을 조종하고 있다. 기계 없으면 불편한 인간 삶에서 기계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 담론 중 하나로 휴머니즘에 초점을 두었다. 당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시대적 조류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기존 전통의 거부 이후 ‘해체’라는 용어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휴머니즘적 가치관은 기존의 거대 담론을 거부하고, 인간중심적 태도를 바탕으로 전통적 사고의 거부와 해체가 시작되었다. 이후 전통적인 휴머니즘 가치관과는 달리, 데리다(J. Derrida)와 폴 길로이(P. Gilroy) 그리고 로지 브라이도티(R. Braidotti)는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데리다는 휴머니즘적

18) 홍성원,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서울: 리드리드, 2021), 41-42.

주체는 자신과 타자와의 외부적 접촉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고, 이러한 주체는 스스로를 알리고 제시하는 존재이지만, 스스로에게 도달하여 타자와 접촉하고 동시에 그 순간 달아나는 주체로 해석했다. 19) 그는 휴머니즘에서 순수성을 거부하고 특히 신체(몸)의 자연적, 기원적 그리고 자연적인 성질을 거부하고 언제나 독립적인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휴머니즘에서 '원래의 것' 즉 순수성을 찾기란 힘들고 자연적인 것에 대한 해체를 시도한다. 20)

데리다는 휴머니즘을 완전히 지울 수 있다는 말은 의지와 행위에 있어서 휴머니즘의 기본적인 것들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휴머니즘의 종말을 인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했다. 데리다는 휴머니즘을 비휴머니즘으로 분리해내는 것은 인식론적 폭력으로서 그것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보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과 비인간적인 다른 타자들 그리고 휴머니즘의 규정 아래에 있는 타자들 사이에서의 폭력에 대해 비판한다. 데리다는 특히 동물에 대한 인간의 권력을 육식과 남성중심주의로 표현하면서 인식론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비판했다. 21)

폴 길로이(P. Gilroy)는 아그나톨로지(agnatology)를 제시한다. 길로이는 구조적이고 강제된 형태의 무지라는 말로서 휴머니즘적 지식의 보편주의적 적용을 비판한다. 그는 비서구적 타자들을 인식론적으로 비인간화시킬 지배와 무지 그리고 거짓과 허위를 구성하는 가치체계에 대해 다른 문화와 사회적 기준에 대한 호전적 거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2) 그

19) Costa, Douzinas, *Adieu Derrida*, 최용미 역, 『아듀 데리다』(서울: 인간사랑, 2007), 51.

20) Penelope Deutscher, *How To Read Derrida*, 변성찬 역, 『데리다』(서울: 웅진씽크빅, 2010), 17-18.

21) Rosi Braidotti, *The Posthuman*,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I』(서울: 도서출판 아카넷, 2021), 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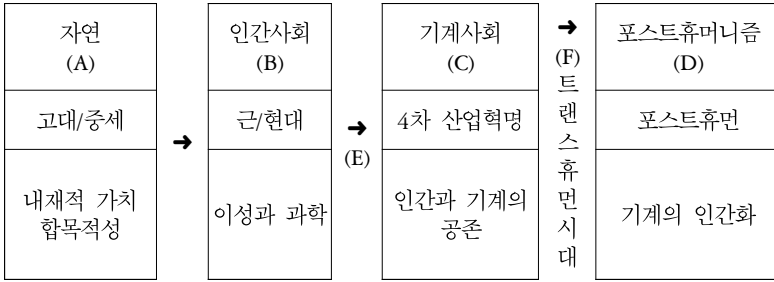
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중심적 가치관에 함몰된 휴머니즘적 해체를 시도하고, 휴머니즘의 범주 바깥의 영역에 있는 타자를 외면했던 그릇된 휴머니즘적 태도를 비판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휴머니즘, 즉 자연을 지배했던 인간중심적 태도와 타자(인간을 제외한 자연과 동물들)를 핍박하고, 그들을 비휴머니즘적 존재로 간주하는 그릇된 휴머니즘을 옹호하기보다는 앞으로 사회가 기계중심으로 재편될 때 상실될 인간미와 그것의 휴머니즘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브라이도티(R. Braidotti)는 『포스트휴먼』이란 책에서 휴머니즘은 특수한 인간됨의 양식을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기준으로 전환시킴으로 이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보편적 인간 즉 휴먼을 초월적 가치를 획득한 존재로 보고 있다.²³⁾ 브라이도티는 현대 사회에서의 다양성과 민족, 종교, 인종, 젠더 그리고 지정학과 자연적 타자들, 무엇보다 인공지능, 합성생명 등의 생명공학 기술에 따른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타자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로 인해 ‘인간’, 내지는 ‘휴머니즘’의 기존 범주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인간 개념에 대한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²⁴⁾ 그동안 인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변해서 인간중심적 위치로 바뀐 것처럼, 지금은 인간중심적 가치관에서 삶의 대부분이 기계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아래 <표 1>은 인류는 (A)~(C)까지 자연, 인간, 기계중심으로 문화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22) 위의 책, 42.

23) 위의 책, 40-44.

24) 이경란,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탈경계인문학』 Vol.2, 26집(2019), 36-37.



기존의 자연중심주의(A)와 인간중심주의(B) 사회는 자연발생학적 존재들 사이에서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할 것은 인간중심주의(B)에서 기계중심주의(C)로의 이동에 나타나는 변화(E)를 넘어서 이후에 나타날 사회·문화적 변화들(F)이다. 앞으로 기술 중심 이후의 시기(F)를 거치게 되면, 자연발생학적 존재의 가치는 찾기 어렵게 될 것이고, 무생물 즉 휴머노이드와 같은 ‘기계-인간’의 인공지능 사회가 인간중심의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자연(발생학)적 존재로서의 자연에 대한 내재적 가치와 합목적성 그리고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드는 내재적 본성에 대한 가치들은 기계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현시점은 자연발생학적 존재와 기계의 공존으로 이어지는 과도기(E)의 시대를 거치고 있다. 앞으로 인류는 트랜스휴먼 시대(F)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이에 자연적 존재의 상실과 그것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그러한 시대의 변화와 추이를 통해 기계중심에서 자연 내지는 인간중심적 사회로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요청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질료가 아닌 형상 즉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 가치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형상(Form, 본질)과 질료(Matter)는 다르다.²⁵⁾ 그동안

25)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적인 사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그것 되게’ 해주는 것을 형상이라고 보고, 이는 사물의 본질로서의 개념을 의미했다. R. L. Arrington, Western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질료보다는 형상이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외적인 요소들 즉 외모나 그 외모를 구성하는 물질보다는 ‘그것을 그것에게끔 해주는 것’ 즉 내적인 가치와 내면의 본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기계중심에서 등장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기술은 인간의 본성적 측면으로서의 형상보다는 인간의 외형적 모습과 흡사한 형태와 인간의 기능적 측면을 의미하는 질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질료와 형상 사이의 중요성과 그것의 다른 가치에 대한 이해가 맞힌다면, 기계(물질)와 인간 본성(형상) 사이에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현재 우리는 기계(기술)중심주의(C)의 세계관에서 인간과 기계 또는 인간과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사이에서의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 우리는 포스트 휴머니즘(D)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자연중심주의(A)에서 인간중심주의(B)로의 세계관이 이동하면서 인류는 다시 자연중심적 세계관으로의 회귀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에 대한 인간중심적 태도는 자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중심적 가치관과 그 사회가 윤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계중심사회에서 인간중심적 가치가 상실될 염려를 하고 있다. 이 사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중심성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제기하는 동시에 그것의 상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계중심(C)에서 포스트휴먼(D)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변화는 ‘인간과 기계의 공존’ 상황에서 ‘기계의 인간화’이다. 우리는 지금 기계중심주의(C) 시대로 넘어와서 새로운 세계관에 살면서 인간중심

Ethics, 63.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질료로서 대상을 설명한다. 형상은 질료를 구체화시키고, 그 질료(사물)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그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본질이 자 실체(Substance)인 것이다.

적 가치관에 대한 상실의 우려를 걱정하고 있다. 인간중심적 가치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자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인간중심성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기계중심사회에서 오히려 인간중심 사회의 상실을 염려한다는 것의 함의는 무엇인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분명 인간의 이기심과 더불어 비판과 성찰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인간중심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함의들과 그것의 상실이 가져올 사회에 대한 염려가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중심에서 기계중심으로 가는 시대에 인간미와 그 인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미에 대한 회복과 인간존재에 관한 철학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와 인간의 공존 사회(C)에서 인간은 점점 기계와 동화되어간다. 일상에서 두뇌를 사용하는 시간이나 메모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살피주는 정서적 교감과 서로를 의지하고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연대감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대신 인간은 기계와 더욱 친숙하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계와 몸은 더욱 일치되어 ‘인간의 기계화’ 시대를 넘어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염려스러워하는 것은 ‘기계의 인간화’이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내적 본성과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대신할 질료는 없다. 하지만 신체의 기능을 대신하는 기계의 등장과 사용 그리고 그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의 인간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인간의 기계화는 인간의 신체를 기계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영화 공각기동대에서 볼 수 있는 기계사회는 기계가 인간의 두뇌를 업로드해서 마치 기계가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공각기동대 원작명은 ‘Ghost in the Shell’이다. 껍질(shell) 속에 정신(ghost)이란 의미로서 단단한 무기질(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심연’의 것 즉 정신적

인 가치와 인간의 본성이 결합된 기계-인간의 흐릿한 경계선의 상실과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휴머니즘(D) 시대로 넘어가서 휴머노이드와 같은 존재가 ‘인간화’되어 간다면, 다시 말해 ‘기계의 인간화’ 시대가 오게 되면, 그들과의 공존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들과 소통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인간의 고유한 본성으로서의 마음, 감정 그리고 내면적 정서의 가치는 점점 퇴색되어 갈 것이다. 이에 이 사회는 포스트휴먼(D) 시대의 완전한 이행 이전에 ‘기계의 인간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점점 기계 사회 또는 휴머노이드와의 공존이 필요한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신체의 기능으로서의 몸은 인간의 정서와 감정 그리고 도덕감(moral sense)²⁶⁾과 연결된다. 인간미에는 정서적인 감정 예를 들자면, 사랑이나 연민 그리고 동정이나 증오 심지어 미움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나 도덕감은 단순히 개인의 몸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제약을 넘어 세계로까지 확장된다. 즉 인간미는 타자와 연관되며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생성되는 도덕적 감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연민이나 동정과 같은 감정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에 의한 것이다. 인간에게서 느끼는 감정 예를 들자면, ‘좋은’이라는 감정은 모종의 선형적인 것으로 주어진다.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언어나 기계로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초월적인 실재들(진/선/미와 같은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치실재론’에 의하면, 이러한 선형적 형태

26) 도덕감(moral sense)은 ‘직관론적 윤리설’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도덕적 판단이나 능력이 이미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하나의 인간의 본성처럼 다루어지는 감정을 말한다. 직관론자들에 따르면, 선형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옳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Sahakian, W.S *Ethics*, 황경식·송휘철 역,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서울: 박영사, 2002), 142-147.

로 존재하는 감정이나 도덕감은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것으로서 경험에 의해 획득되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²⁷⁾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은 내면에서 비롯되지만 학습이나 교육 그리고 환경 등의 영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는 아직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특수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근접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 기계중심사회에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이다.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닌 다른 사물이나 기계들은 수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물건이나 사물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상대적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 절대적이고 동시에 목적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인간 생명의 가치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했던 우리의 오래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은 다른 그 어떤 것과 다르게 반드시 ‘목적적 존재’²⁸⁾로 대우 받았다. 하지만 기술 중심의 사회가 오게 되고, 인간의 신체가 ‘기술화’되면서 여러 신체의 일부들이 기계처럼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사회 구성원들은 오랜 전통과 인간의 절대적 가치의 신념을 기계중심사회에서 재발견해야 한다. 신체의 일부가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가치로 전락하게 된다면, 자칫 우리는 인간을 ‘수단화’하거나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사회에 익숙해질 것이다. 영화 공각기동대는 인간의 신체를 기능화로 대체하고 신체를 대신할 기계를 시장에서도 거래될 수 있는 미래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기계중심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 즉 목적적 존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소중

27) 김태길, 『윤리학』(서울: 박영사, 2004), 14-15.

28) 칸트(I. Kant)는 인간의 목적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은 결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은 한갓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도덕형이상학 원론 IV, 6』)”라고 말하고,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환 가능한 수단적 존재가 아닌 목적적 존재라고 말한다.

함은 완전한 기계중심사회가 오기 전 지켜나가야 한다.

인류가 로봇이나 기계중심사회에서 지켜나가야 할 마지막 유산은 ‘공동체의 구현’이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욕구는 자신을 포함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 구성원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인간의 조건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욕구는 더 나아가 가족에서 마을 그리고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의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에서 비롯된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없으면 더불어 살아갈 수 없고, 이에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 사적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동시에 공유하며 나아가는 존재이다.²⁹⁾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과 본성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하는 대신, 인간과 흡사하게 마치 ‘인간처럼’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에 대한 효율성과 기능성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이러한 기계중심사회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더디게 되고, 우리가 기술에 대한 가치와 기능적인 요소들만 강조하는 과학기술의 특성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휴머니즘 사회가 사라지고 포스트휴먼 시대는 급속하게 당겨질 것이다.

끝으로 인류가 주목해야 할 과정은 (A), (B)와 (C) 사이를 넘어가는 경계선(F)의 변환점이다. 자연과 인간의 자연적 존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관은 (C)로 넘어가면서 자연적 존재로서의 생명이 아닌 기계중심으로 넘어가는 과도기(F)이다. 앞으로 자연적 존재로서의 생명에서 그러한 생명과 무관한 기계(무생물) 중심으로 사회가 바뀐다면, 자연적 존재가 가진 가치와 그것의 함의는 상실될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포스트휴먼 시대, 우리는 다시 인간중심적 가치관인 휴머니즘의 귀환을 요청하고 있다. 기계중심사회로의 변화를 걱정하는 시대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휴머

29) Trigg, R, *Ideas of Human Nature*, 최용철 역, 『인간본성에 관한 열 가지 철학적 성찰』 (서울: 자작나무, 1996), 207-208.

니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휴머니즘 즉 인간중심주의로의 회귀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휴머니즘의 가치는 기계중심 사회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자연적 존재로서의 유한성을 지닌 오직 인간만이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IV. 휴머니즘으로의 귀환: '자연적 존재와 유한성을 지닌 인간과 그 가치들

1. 자연적 존재와 '유한성'으로서의 휴머니즘적 가치

기계중심주의 사회가 오면서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의 상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인간중심주의가 윤리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중심주의를 요청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에 기계중심의 사회에서 자연적 존재 가치의 상실에 따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요구되는가? 인류 사회가 기계중심주의(C)로 넘어가면서 '살아있는' 자연적 존재가 아닌 무생물이 세계관의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시대 이후,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 즉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고, 결국 포스트 휴머니즘(D) 시대에 들어서면 완전히 그 경계는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인류와 사회는 기계중심사회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넘어가는 과정(F)에서 자연적인 생명과 인공적인 생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 또는 생명과 생명이 아닌 사물과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기존의 세계관과는 달리, 사회는 기계중심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 실존은 위협을 받게 되고, 그 실존에 대한 성찰과 함께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리 사회에 남겨두게 되었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인간의 자연적 삶에 대한 유한성과 자연적 몸의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다. 하버마스(J. Habermas)는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기술적인 것들과 혼합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들과 인위적 개입으로 만들어진 것 사이의 범주적 차이를 자꾸만 지우려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³⁰⁾ 실제로 공각기동대 영화에서는 인간의 영혼에 기계 신체를 가진 사이보그가 등장하게 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던지고 있다. 그것이 기계인지, 사람인지에 대한 경계선의 모호성과 무엇보다 두뇌의 칩을 기계(shell)에 이식하는 과정은 기존 인간 경험의 양식의 틀을 깨고 있다. 하버마스는 인간은 기초적인 삶 즉 ‘몸으로서의 있음’으로서의 경험 양식이 첫 출발점이고 그런 경험에서 인간의 삶과 인격체가 구성된다고 말했다.³¹⁾ 하지만 인류는 이제 ‘구성적인 기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기술에 의해 몸으로서의 존재는 기계(신체)로서의 경험 양식으로 대체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버마스는 자연적 운명의 조작 가능성이 생겨나면서 자연적 삶 즉 미래에 대한 우연적 요소들이 배제되고, ‘자연(인간)의 기술화’로 인해 새로운 상상의 세계가 인간에게 예상치 못한 변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³²⁾ 하버마스는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믿고 생각했던 신념들의 붕괴와 인간으로서 당연히 생각했던 ‘인간학적인 보편적 가치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경고한 것처럼 미래 시대에는 [인간-기계]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간의 자연적 존재의 해체가 당연한 기술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기계의 결합을 추구하는 사이버네틱(cybernetics), 즉 공각기동대 여자 주인공처럼, 두뇌와 기계를

30) 위르겐 하버마스,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82-83.

31) 위의 책, 94-95.

32) 위의 책, 82-83.

연결하여 의사소통과 제어에 관한 기술이 현실에 등장하고 있다.³³⁾

공각기동대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은 인간 생명 연장의 완성 장면을 그린다. 영화는 인공신장이나 두뇌를 업로드 한 존재의 정체성 문제를 넘어서서 생명연장의 꿈을 완성한다. 영화 속 한 인물은 사고가 나서 팔이나 눈을 잃게 되어도 전혀 염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시 인공눈이나 인공팔을 얼마든지 몸에 이식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인간 생명의 가치는 ‘유한성’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유한성이 기계로 대체되는 순간 자연적 삶의 함의는 붕괴되고 동시에 우리는 자연적 존재를 기계로 대체하는 일상에 젖어들면서 삶의 유한성이 주는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인간 생명과 삶의 유한성이 붕괴되고 그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인간은 ‘호모 데우스(homo deus)’ 즉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에 대해 경고한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하늘 처럼’ 높아지고 싶어 하는 욕망의 결과를 보여준다. “(바벨)탑을 건설하여 그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온 땅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창 11장 4절)”라고 기록된 것처럼, 인류는 신이 가진 전능함과 인간 세상에서 추구할 수 없는 완전함을 구하고자 ‘신처럼’ 되고 싶어 하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과 같이’ 되어 그 이후에 삶의 유토피아가 완성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디스토피아의 참혹한 세계를 남겨둘 뿐이었다. 인류가 찾고자 했던 ‘생명의 불로초’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서 육체의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 바벨탑과 불로초는 생명의

33) Jean Delbeke, *Des protheses pour le cerveau*. 김성희 역, 『인체와 기계의 공생, 어디까지 왔나』(서울: 알마출판사, 2013), 13-14.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내면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진시 황제가 찾던 그 생명의 묘약은 현대 기술의 바벨탑과 그 무엇이 다른가?

하버마스는 우리의 신체는 자연적으로 혼합되어 인간의 정신이 주체가 되어 체험되는 주체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인간의 신체는 뇌에 의존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완전성을 가진 존재이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⁴⁾ 인간의 몸은 거대한 하나의 합성체이자 온전한 자연적 생명³⁵⁾이다. 어느 하나 기술화를 통해 신체의 일부를 대체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자연적 존재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자연적 몸은 인류와 자연 전체와 연관된 하나의 ‘자기 이해’의 형태이며 동시에 자연과 심지어 도덕적인 의식까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이다.³⁶⁾ 하지만 생명공학 기술이 인간의 신체를 기계로 대체하고, 그 대체가능성을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환원된다면, 그 기능은 몸의 일부로서의 기능에 불과하지 인간 실존을 구현하거나 도덕적 존재로서의 자기이해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과학자들은 몸에 심는 전기자극 기술들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횡경막을 자극해서 수면장애를 극복하고, 외골격 다리와 컴퓨터 보행 프로그램의 발달은 하반신 마비 환자들에게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신경과 근육, 전기역학적 긴장도 측정기의 발달로 안면이나 다른 신체 부위 마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³⁷⁾ 앞으로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탈신체’와 같은 사이버 인간이 등장하여 신인류 시대를

34) 위르겐 하버마스,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2008, 82-83.

35) 인간은 자연적 생명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다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일부로서의 생명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자연에서 시작된 생명 그 자체이다.

36) 위의 책, 83-84.

37) Chris Gray, *Cyborg Citizen*, 석기용 역, 『사이보그 시티즌』(서울: 김영사, 2016), 156-157.

만들기에 부족함 없어 보인다.

들뢰즈(Gilles Deleuze)는 ‘기관 없는 신체’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신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형태로서의 몸(신체)을 가지지 않고, 자연발생학적 존재로서의 몸 대신 몸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자연적 존재로서의 몸에 기계의 개념을 끌어 들여 기계란 단지 몸의 연장에 불과하며 몸의 보충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한다. 비록 몸과 기계가 상호 관계성을 지녀도 몸은 여전히 기계와 전혀 다른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³⁸⁾ 미래에 이러한 세상이 도래하게 될 때,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인간중심과 기계중심의 공존, B~C)에서 인간의 본성과 그 가치를 구현하는 현재의 모습을 그리워할 것이다. 만약, 기술발달로 인공지능 기술과 휴머노이드와 같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회 곳곳에 인간이 아닌 기계중심사회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 사회에서 유한성을 가진 인간의 세계와 자연중심의 사회로의 이행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2. ‘신의 선물’로서의 타고난 재능과 ‘함께함’으로서의 휴머니즘적 가치

생명연장 기술들이 넘쳐나게 되고, 인공지능과 사이버네틱 그리고 ‘맞춤아기(designer baby)’ 기술 등이 상용화되면, 생명의 유한성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가치가 더 이상 인간의 실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관 없는 신체나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는 기술 시대에 이러한 예시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포스트휴먼 시대에 기계 중심주의 사회는 인간미의 상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 기술과 과학 기술의 발달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술이 인류에게 많은 혜택과 편리성

38) 서동진, “기관없는 신체 혹은 신체없는 기관”, 『문학과경계』 제4권 1호(2004), 138.

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AI와 같은 기술과 휴머노이드와 같은 존재들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인류가 염려할 만한 기술적 공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기술이 가져다줄 공포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통해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과학자들은 AI 기술 시대에 등장할 휴머노이드와 같은 존재가 지적 능력이나 자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면 인류가 염려하는 기술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논자는 기술이 가진 공포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그 시대에 휴머니즘의 가치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마이클 샌델(M. Sandel)은 인간의 유기적 생명을 조작하거나 기계중심 사회에 등장할 인간 생명의 유한성이 상실될 시대에 '선물로 주어진 인간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는 인간의 삶은 (하늘에서) 주어진 선물이며, 삶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함을 갖는 것은 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생명과 삶에 대해 겸손할 수 있다고 했다. 샌델은 재능을 가진 음악가나 운동선수는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재능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이 행운이든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든 그 재능은 자신의 통제의 영역을 넘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한다.³⁹⁾ 샌델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형이상학적 가치를 빌려와 거기에 의존하면서 설명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반박할지도 모르나 그것은 우리가 결코 쉽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칸트와 하버마스 등 많은 사상가들이 이러한 가치에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⁴⁰⁾

39) Michael Sandel, *The Case Against Perfection: Ethics in the Age of Genetic Engineering*, 이수경 역, 『완벽에 대한 반론』(서울: 와이즈베리, 2016), 119-121.

40) 위의 책, 121.

샌델은 우연의 영역 즉 타고난 자연적 재능⁴¹⁾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보다는 행운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런 유전적인 재능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운명에 의한 ‘유전적 제비뽑기’라고 말했다. 그는 우연적으로 얻어지는 재능이나 성공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⁴²⁾ 그는 인간의 삶을 운명처럼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며 동시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⁴³⁾

샌델은 미래 인간의 모습에 대해 말하면서 유전적 재능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으로 변해간다면, 재능은 선물로 주어진 삶의 일부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⁴⁴⁾ 그는 ‘주어진 재능’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신의 선물이며 자연적 재능에 대한 감사야말로, 자연적 존재로서의 휴머니즘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샌델은 이러한 휴머니즘적 가치를 더 이상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래 기술에 대한 휴머니즘의 상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인류는 이러한 신체강화 기술로 인해 점점 타자와의 간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와 현대 인류는 자신이 가진 자연적 재능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서로 돕고 살아왔다. 서로의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상호보완적으로

41) 성경에서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신유의 운사, 능력 행함 등,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에 의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고전 12:1-11).”이라고 기록되었다.

42) Michael Sandel, 『완벽에 대한 반론』, 117-118.

43) 위의 책, 45.

44) 위의 책, 106-107.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미래에 인류는 자연적 재능이나 우연적 결과로 인해 얻어지는 재능을 찾기란 매우 힘들고, 오히려 유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강화된 '수퍼 인간'이 등장하게 되면서 타자와의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샌델은 자연적인 재능과 그것이 가진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스포츠 경기의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자연적인 재능과 소질을 마음껏 보여주며, 그들의 자연적인 재능을 가꾸고 보여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로 예우하는데, 앞으로 신체를 증강하고 타고난 재능을 기술로 대체한다면 이런 가치와 하늘에서 주어진 재능을 변질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선물로 주어짐'으로서의 인간의 삶과 휴머니즘적 가치가 상실될 것으로 보았다.⁴⁵⁾

성경은 인간의 삶은 '홀로됨'이 아닌 '함께함'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태초에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 배필을 지으셨다(창 2:18-22). 이처럼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원래부터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타자성을 지닌 존재이고, 타자와 함께하는 삶은 모든 인류의 첫 출발이었다. 성경은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었고,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⁴⁶⁾ 또한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속성을 지닌 스쳐 지나가는 타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서의 타자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타자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원래부터 타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즘의 가치일 것이다.

샌델은 인간의 삶과 재능이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45) 위의 책, 47.

46) Gordon J. Wenham, *Word biblical commentary. Genesis 1-15*, 박영호 역, 『창세기』 (서울: 솔로몬, 2001), 184-185.

인지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운명을 공유할 이유가 많아진다고 말한다.⁴⁷⁾ 다시 말해, 우리의 재능이 우연적이고, 알 수 없는 운명으로 타오난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을 자신의 노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탓을 하기보다는 타자와 서로 다른 재능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레비나스(E. Levinas)는 타자와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 또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요구하는 상태로서 ‘가까움’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타자와의 관계성에서의 ‘가까움’은 단순히 [나-타자]와의 상호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바로 타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과정으로서의 관계성을 말한다.⁴⁸⁾ 그는 순간적으로 마주 대하는 타자가 아니라 우리와 늘 같이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는 실존적 존재로서의 타자를 말하고 있다. 그에게서 타자에 대한 책임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늘 함께 마주치면서 생활하는 ‘가까이’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응답이다.⁴⁹⁾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늘 타자와 함께 살아간다.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익명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늘 ‘가까이’에서 나와 연관된 타자들과 함께 살아간다. 인간은 원래 타자와 함께 삶을 영위하는 휴머니즘적 가치를 구현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미래 완전한 기계 중심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인류의 실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늘에서 주어진 삶과 재능을 가진 휴머니즘적 가치 그리고 타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연대적 책임과 윤리적 삶에 대한 휴머니즘의 가치는 기계중심 시대에 더욱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휴머니즘의 재발견을 다시금 제고하여 기계 중심주의 사회에

47) Michael Sandel, 『완벽에 대한 반론』, 116.

48) 성신형, 『틸리히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대화』(서울: 한들출판사, 2018), 65-66.

49)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권 (2015), 197.

휴머니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제기해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현대인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철저히 잊고 인간중심적 가치관에 함몰된 채, 기계와의 공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인류는 인간미의 가치를 염려하고, 자연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환경 보호 등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마지막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계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모습이다. 인간-기계의 상호 공존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시대와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 시대가 오고 있다. 미래에 우리는 인간미의 상실은 물론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회 구성원들은 인간과 기계 사회의 공존 속에서 자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계중심사회의 등장은 자연과 인간의 자연적 존재로서의 가치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자연에 대한 태도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계중심사회의 등장으로 자연적 존재로서의 자연과 인간의 가치까지 훼손할 염려까지 경계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고난 재능에 대해 운명 또는 신이 주신 재능으로 생각하고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미래에 인간의 재능이 '타고난' 것이 아닌 기술적으로 '제작' 가능한 것으로 변해간다면, 그 재능은 더 이상 선물로 주어진 타고난 것이 아닌 제작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재능은 휴머니즘의 조건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주어진 재능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이며,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휴머니즘이 가진 조건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휴머니즘의 조건을 상실하

지 않기 위해 기계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휴머니즘적 가치와 조건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지금 인류에게는 자연에 대한 가치와 보존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기계중심 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상실될 인간의 가치와 실존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의 복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포스트휴먼 사회가 오게 되면 자연과 인간의 자연적 존재로서의 함의를 상실할 우려는 농후하다. 우리는 포스트휴먼 사회에서 인간미와 인간의 정서 그리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론적 함의까지 지켜나가기 위한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 성찰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은 휴머니즘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기계중심의 사회와 상호 만남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인류는 기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기계를 인간의 편리성을 위한 수단과 인간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인류는 기계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다. 기술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다. 과학기술 그 자체는 윤리적인 가치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인류 공동체가 “그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윤리적 가치 판단이 문제 될 것이다. 인류는 기술을 휴머니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고, 휴머니즘의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윤리적 성찰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류는 인간중심주의의 폐해 즉 인간중심주의가 가진 비윤리성을 극복해야 한다. 오직 인간만이 최고의 주체라는 가치관은 내려놓아야 한다. 인류 구성원들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자연을 포함한 타자까지 인류애를 확장 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요청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연중심적 세계관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우리에게 자연 보존을 위한 관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연과 인

간만이 가진 자연발생학적 존재는 더 이상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제아무리 기계로 자연적 인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어도 인간의 유한한 존재론적 함의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가치는 대체불가능할 것이다. 비록 인간의 신체를 대체하는 기술이 발달되어도 인간의 유한한 실존과 그 가치 그리고 인간미는 결코 대체하기에는 무리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생명공학과 AI 시대에 인류가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기술이 지배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완성되기 전까지 자연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관은 바라지도 않더라도 최소한 휴머니즘이 구현되는 세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성찰과 윤리적 질문들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휴머니즘, 즉 인간 삶의 유한성이 주는 존재론적 함의들과 하나님이란 선물로서의 저마다 '타고난 재능'은 과학 기술 시대에 그 의미를 다시금 요청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각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예술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또 어떤 이는 가르치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재능을 가진다. 이러한 재능은 하늘에서 주는 선물로서 각자의 휴머니즘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각자 '타고난' 가치관과 성격 그리고 그 재능에 끌리는 각자의 관심과 취향은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휴머니즘의 가치, 더 이상 과학기술 시대에 접어들어 사라지지 전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마지막 인류의 과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 Arrington, R. L. *Western Ethics*,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1998.
- Bridotti, R/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서울: 도서출판 아카넷, 2021.
- Delbeke, J/ 김성희 역, 『인체와 기계의 공생, 어디까지 왔나』. 서울: 알마출판사, 2013.
- Deutscher, P/ 변성찬 역, 『데리다』. 서울: 웅진씽크빅, 2010.
- Douzinas, Costa/ 최용미 역, 『아듀 데리다』. 서울: 인간사랑, 2007.
- Gray, H,C/ 석기용 역, 『사이보그 시티즌』. 서울: 김영사, 2016.
- Habermas, J/ 장은주 역, 『인간이라는 자연의 미래』. 서울: 나남 출판사, 2008.
- Jonas, H/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서울: 서광사, 2010.
- Moore, Brooke N. & Bruder, Kenneth. *Philosophy: The Power of Ideas*. London: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93.
- Sahakian, W.S/ 황경식 · 송휘철 역,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서울: 박영사, 2016, 2002.
- Sandel, Michael /이수경 역, 『완벽에 대한 반론』. 서울: 와이즈베리, 2016, 119-120.
- Stumpf, Samuel E. & Fieser, James. *Socrates to Sartre and Beyond: A History of Philosophy*, New York: McGrawHill Press, 2002.
- Singer, Peter. *Rethinking Life and Death*, New York: Martins's Griffin Press, 1994.
- Trigg, R/ 최용철 역, 『인간본성에 관한 열 가지 철학적 성찰』. 서울: 자작나무, 1996.
- Wenham, Gordon J/ 박영호 역, 『창세기』. 서울: 솔로몬, 2001.
- 김관수 · 안춘기. “휴머노이드.” 「전기의 세계」. 67권 2호(2018). 10-11.
- 김도식.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와 함께하는 시대.” 「철학과현실」, 116호(2018), 141-142.
- 김태길. 『윤리학』, 서울: 박영사, 2004.
- 김태양. “휴머노이드의 미래.” 『Future Horizon』, 34권(2017), 1-2.

- 박종식.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와 이성의 이질성 문제.” 『대동철학』, 18집 (2002), 6-7.
- 박찬국. “목적론적 자연관에 대한 재검토.” 『시대와 철학』, Vol 15,(2004), 137.
- 서동진. “기관없는 신체 혹은 신체없는 기관.” 『문학과경계』, 제4권 1호(2004), 138.
- 성신형.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존재론적 모험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33권(2015), 197.
- _____. 『틸리히와 레비나스의 윤리적 대화』. 서울: 한들출판사, 2018.
- 신상규.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서울: 도서출판 아카넷, 2017.
- 이경란. “로지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먼.” 『탈경계인문학』, vol12, 26집(2019), 36-37.
-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서울: 도서출판 아카넷, 2016.
- 홍성원.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서울: 리드리드, 2021.
- 『서울경제』, 2018, 1,30, “인류 지배하겠던 AI로봇 소피아, 한국 방문해”.

논문투고일: 2024년 02월 28일

심사개시일: 2024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15일

• 국 문 초 록 •

고대 그리스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목적론은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 이성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로 새롭게 재해석되었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의 본성을 지닌 존재라기보다 인간을 위한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 하지만 자연의 이러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그와 동시에 인류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인간의 지위는 점점 추락하고, '기계중심적 사회'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인류는 미래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기계에게 내어줄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자연중심과 인간중심 차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몰래 찾아온 기계중심사회를 들여다보고 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계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상실된 자연의 가치와 인간미를 고민하고, 더 이상 자연중심의 가치관을 꿈꿀 수 없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다. 끝으로 기계중심사회가 오면서 사라질 휴머니즘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이 글은 자연적 존재와 '유한성'으로서의 휴머니즘과 타고난 재능과 '함께함'으로서의 휴머니즘의 가치를 다루고 있다.

주제어: 자연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해체, 자연적 존재, 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